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 / 여익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③

춤고 배고팠던 불교계 운동권 대표



여익구는 당시 봉은사 부지 할값 매각에 대한 불교계의 분노와 분규를 이용했다고 구술했다. 단순히 유신반대를 내걸고 학생운동 조직을 구성하기가 어려웠다. 불교계의 분노를 이용해 동국대 조직을 구성했고, 이 때 다수의 불교권 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이다.

기 위한 교재를 준비했다. 대학본부 쪽에서 등사기를 마련했다. 당시 불교학과 목정배 교수는 “뭘 하느냐”고 다그쳤지만, 그들은 총계 밑에 등사기와 유인물을 감춰왔다. 여익구와 이춘섭, 조명희, 이영희, 김태숙 등이 1974년 4월 3일 유신반대 데모 날짜를 잡고 준비했다. 드디어 D-DAY가 찾아왔다. “그 인저 그걸 어차피 내가 그 뿌

리기로 한 거니까 들고 인저 나왔어. 들고 나와 가지고 서울역에 가는 서울역에 가서 뿌리는 걸로 했던 거니까 응 근데 서울역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애 [하하하]. 어떻게 용케 하려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도저히 어디다 뿌릴 데가 없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다가 처넣고 [하하하]. 알리고 뭐뭐 저거 할려고 그랬었는데 건 못하고, 인저 비집까지 그 건 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를 뒤엎지 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머머하게 커질 줄은 몰랐던 거야, 사실은. 그렇게 뭐 민청학련이라는 것을 들어 가다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조직해 놓은 거고 응. 그러가지고 뭐 이철이랑 녀석은 뭐 어머머마한 현상금 걸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놓고, 그러다가 일주일인가 도망 다니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당시 여익구는 이철을 만났어도 그가 주동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여익구는 1주일의 도망 다니다 검거됐다. 그는 자신이 검거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이태숙 학생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것이 수사관들의 합점이었음을 유쾌하게 회고했다.

“좋아했던 거니까 그 후에도 가끔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공무원이야. 공무원이었던 거 같애. 그 엄마가 그 딸이 그랬다는 걸 알고 완전 히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그러가지고 딸을 죽인거야. 딸을 죽여서 “만나는 놈 데”라고 말이지. 그 딸이 애길 안 한 거예요. 애길 안하니가 뭐 어 인저 “집안 말할 년” 어찌고 그랬는지 협박을 해가지고 이... 나중에 인저 만나는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나왔어. 나왔는데, 그냥 앉자마자 얼굴이 하얘지더니 저거 하는 거야. 눈물을 콧 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못했어” 그러더니 무너지더라고. 딱 보니까 경찰들이 딱 들어온 거지 [하하하].”

그 자리에서 여익구는 바로 검거돼 재판을 받는 과정과 함께 10개월 복역 후 이듬해 풀려난다. ‘민청학련’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사 당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그는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출소했다. 졸지에 여익구는 운동권의 불교계 대표가 된 것이다. 유명인사가 됐다.

복역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불교계의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기독교계에서 관련 수감자들에게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과 비교됐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조직적인 지원을 목격했다. 그에 비해 자신은 불교계의 대거 하는 거야. 눈물을 콧 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못했어” 그러더니 무너지더라고. 딱 보니까 경찰들이 딱 들어온 거지 [하하하].”

‘화엄경문답’ 저자는 지통

김상현 교수, 국제학술대회에서 밝혀



동국대 김상현 교수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가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을 둘러싼 제(諸)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현 교수는 기초발표를 통해서 ‘화엄경문답’은 (추동기)의 이본(異本)이며 저자가 범장이 아닌 의상의 제자 지통임을 확실한 근거를 들어 밝히고 ‘화엄경문답’이 중국이 아닌 신라의 문헌임을 못 박았다.

금강대학교(총장 정병조)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 HK 교문사에서는 3월 25~26일 서울 관문사에서 ‘화엄경문답’을 둘러싼 제(諸) 문제를 주제로 제5

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회 국제학술대회는 중국 화엄종 제3조 범장 스님의 저술로 알려진 ‘화엄경문답’의 사상사적·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상현 교수는 ‘화엄경문답’의 사상사적·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상현 교수는 ‘화엄경문답’의 사상사적·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상현 교수는 ‘화엄경문답’의 사상사적·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범장의 저서 논란서 벗어나

의상의 제자 의통 저술로 확정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상현 교수는 ‘화엄경문답’의 사상사적·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상현 교수는 ‘화엄경문답’의 사상사적·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상현 교수는 ‘화엄경문답’의 사상사적·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상현 교수는 ‘화엄경문답’의 사상사적·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상현 교수는 ‘화엄경문답’의 사상사적·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상현 교수는 ‘화엄경문답’의 사상사적·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상현 교수는 ‘화엄경문답’의 사상사적·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경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③

온 국민의 지지를 받던 불교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지 1700여 년이 흘렀다. 이 세월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을 찾고 안심입명(安心立命) 해 왔다. 불교가 탄압 받는 시기를 지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온 국민들의 귀의처로서 그 역할도 했다.

요즘은 어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고 하기에는 답이 망설여지는 현실이다. 지난 역사의 흐름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시대의 과제를 등진 종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문제에 사부대중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 희망을 조심스레 가져본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년에

불교가 국가적으로 공인돼 우리나라에 전래됐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보면 374년에 아도(阿道) 스님이 진(晉)나라에서 왔다. 375년 초문사(肖門寺)를 지어 머거기를 지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온 국민들의 귀의처로서 그 역할도 했다.

백제는 침류왕 원년, 384년에 남중국 동진(東晉)에서 서역 출신 마라난타(摩羅難陀) 스님에 의해 다 음해 수도 근처 한산(漢山)에 절을 건립하고 열 명을 출가시켜 거주하게 하여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해동고승전>에는 인도 출신인 마라난타가 포교를 위해 중국을 거쳐 백제에 왔다는 고기(古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신라는 5세기 초부터 고구려를 통해 불교가 전해진 것으로 보이

지만, 6세기 전반인 법흥왕 15년(528)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차돈의 순교’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용됐다.

불교가 수용된 이후 삼국에서는 불교의 사상이나 이론을 정치이념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또 삼국시대 각 나라에서는 많은 스님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와 대중들을 교화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불교가 삼국시대에 정착되면서 부처님과 보살님에 대한 신앙도 널리 퍼졌고, 특히 미륵보살반가사유상에 대한 신앙이 활발했다.

삼국시대의 불교가 왕실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신앙이었다면, 통일신라에서는 지배층과 하층민까지 포함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신앙으로 발전했

다.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아미타신앙과 현세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원하는 관음신앙이 형성되었다.

신라 후기 중국에 유학했던 범랑(法朗) 스님이 중국 선종의 제4조인 도신(道信, 583~654) 스님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선법을 최초로 전한다. 신수계통의 북종선으로 후대 중국선종의 주류가 된 남종선 이전의 선사상이었다. 신라에 남종선을 처음으로 전한 스님은 40여 년 중국 유학하고 한덕왕 13년인 821년 귀국한 조계종의 종조(宗祖)인 도의선사였다.

고려를 개창한 왕건은 건국초부터 적극적인 숭불정책을 시행하였다. 왕건에서부터 시작된 숭불정책은 역대 국왕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불교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할 수 있었다. 고려왕실의 불교에 대한 귀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역대 국왕들의 원찰과 진전(眞禪)사찰들이다. 고려의 일

년 행사중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가 불교적 의례인 연등회와 팔관회였는데, 이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불교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게 한다.

2009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된 대각 불화인 일본 경신사(가가미진사) 소장 고려 수월관음도(표구보함 전체높이 약 5.3m)가 생각난다.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고려 수월관음도는 전세계에 160여 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10여 점뿐이다. 일본에 100여 점이상이 있다. 2010년 G20세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예술품으로 고려불화가 선정되기도 했듯이, 고려불화는 우리 문화계의 우수성과 귀중한 가치를 충분히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대구 053-566-1116 울산 052-260-1037 부산 051-441-0111 경남 055-932-5877 제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바른정법. 바른인연 III 아직도 말을 불듣고, 화두 불듣고 앉아 있습니까? 언제쯤 세상에 몸을 나누실 겁니까? 우리는 얼마전 모방송사에서 방승되었던 이태석 신부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감동과 감응의 배경은 육적(육식도착)을 가시발길과 불구덩이에 머무는 바 없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자로서 실천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종교는 달라도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믿음도 가르침도 꼭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나 가르침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천하는 그 선봉에 성자가 당연히 실천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한답시고, 어려운 문자나 난해한 용어를 쓰는 것이 불교인 양 비쳐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임을 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절집은 세계 최대 부처님 조성에 경제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절집을 키우고, 납골당을 짓고, 부처님 목욕탕이나, 00신동도량이나, 00영험도량이나, 00발바위 도량이나 등등..... 불교의 주인공은 바로 '나' 라는 것에서부터 무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영험 신동 도량이라니..... 또, 법당안을 들여다 보면 큰 등 무엇이 며, 작은 등 무엇인지..... 법당이라 함은 '법이 있는 집'이란 뜻인데, 법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인등을 비롯해서 각종 등을 켜는 비용과 산으로, 바다로 방생을 한답시고 쓰이는 비용과 성자순례 한다고 국내외로 부처님을 찾아 여기저기 쫓아 다니지 말고, 그러한 막대한 비용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수술풍이 없어서 병고로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찾아 '인간방생'을 하십시요! 자..... 그 베품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 절대 자랄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타인이 알아주기 위해 하는 것은 성인들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이러한 가르침의 바탕에는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자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중생을 이끌어야 합니다. 백경화회 선사와 같이..... 그는 실천수행자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시. 앞서서 말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말에 빠진지 오래고, 말로는 불, 조사를 뛰어 넘고 있지 않는가? 이 도리를 찾고 저 도리를 찾고, 이 맞고? (이 무엇이고?) 말고 무엇이 있는가? 요즘은 어느 게그프로 나오는 유행어를 인용하면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명호를 불철주야 불러보니 부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네, 보입니까? 우리는 불보살님의 권능을 갖기 위해 실천적인 수행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도덕, 바른생활을, 또 국민윤리를 공부한 기억이 다 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와 다른 바가 있겠는가? 다만 실천하지 않기에 어려웠을 뿐이다. 그럼, 왜 말로는 실천을 얘기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불합시다', '다들 성불하셨나요?' 성불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을 이익되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성불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 그것은 방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시발길을 걸으신지 6년만에 성불하셨다고 하지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아심은 물론, 육신통을 얻고 나서 중생의 곁에서 고통을 이루면서 주사다 가셨는데..... 자, 부처님은 6년 수도 끝에 여섯가지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님이, 법님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몇몇이나 얻었나요? 부처님과 조사가 남기고 가신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부처님 보다는 성불하는 시간이 빨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각각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무엇인지..... 모든 가르침은 식, 답이 없다..... 앞서서 식, 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행원보살로써..... 실천수행자로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행)에서 얻어지는 결과(증)인 것입니다.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대종일등